

오는 7월말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의 방북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될 평양의 평화통일기원 남북공동법회의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남북종교교류의 새 물꼬를 트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숨은 공로자라면 단연 법타스님(50, 평북협 상임부회장)을 꼽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애향이나 감경자세를 계속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월주스님께서는 '북에 가는 것을 구걸하지 않겠다. 통일을 염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방북하려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도 순수한 종교교류를 강조했습니다. 월주스님이 다른 약속으로 나가신 이후 실무회담이 계속됐는데 그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고 했지요. 체제는 달라도 같은 조계종이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으로 오래 끌면 안된다는걸 역설했어요. 박태호 위원장이 남북간의 통로를 뚫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이곳까지 나온

수요인터뷰

남북 불교교류 예비실무대표단장

법 타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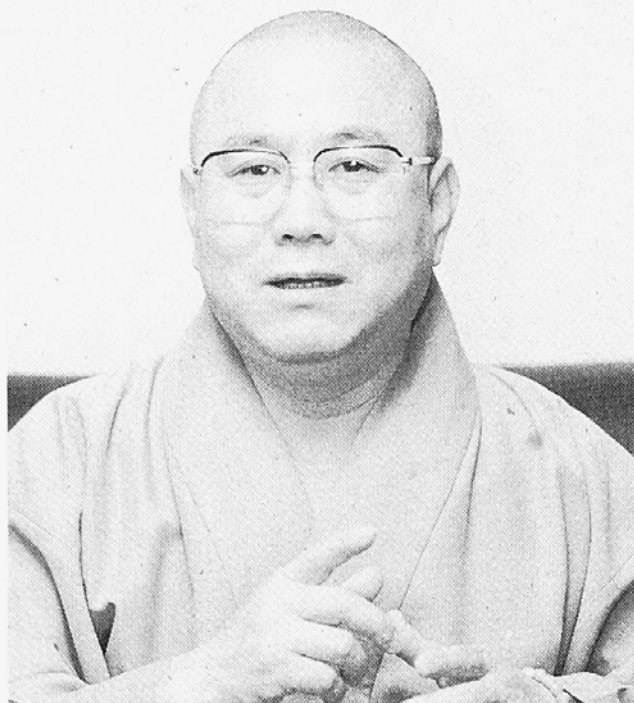
남북한 최고 불교지도자들의 공식 합의로 순수 종교교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추진한 이번 합의에 불교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낸 단장으로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 물론 보람이 큼니다. 올해는 해방 50년이면서 분단된 지도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천만 이산가족은 생 노 병 사 뿐 아니라 애별리고(愛別離苦)·구부득

것 아니면서 우리측이 제안한 6가지 협의항목 자료를 주었지요. 그러자 상상된 서기장이 얘기하더군요. 지난번 서신에서는 첫번째 안이 8·15관문점공동법회 개최였는데 이번에 두번째로 바뀐 것은 근본적으로 인한 생각있는 게 아니냐는 질타였지요.

—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 안하러는게 아니고 못하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북측에



약력

- 1946. 5. 16 충북 청원 생
- 1965. 12. 8 법주사서 추담스님 은사로 득도
- 1976. 동국대 인도철학과 졸업
-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미국 사우스배일로드 명예 철학박사
- 선원사, 기림사 주지 역임.
- 현 평북협 상임부회장, 불교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종원에 서서> <북한불교답사기> 등 저서.

“남북불교 일불제자 인식 마음열고 교류해야죠”

92년 평북협 창립 “민족화합 가교역 통일의 그날까지”

고(求不得苦)·원증회고(怨憎會苦)에다 세월이 많이 흘러 월남 1세대는 얼마 안 있으면 열반에 들 오음성고(五陰盛苦)의 8苦까지 겪고 있습니다. 통일은 그러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불교가 그동안 현실감각이 둔해 타종교에 비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많이 외면해 왔지만 실은 어느 종교보다도 증생의 고통에 눈을 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해방 50년이 되는 8·15 직전에 평양에 가 남북한 불자들이 한자리에 평화통일을 간절히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해 왔으니 불보살께서도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감응해 빠른시일내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해방 50년 ‘염원’ 절실

— 북측은 북경에서 5월23일 회의를 하지만 해도 관문점에서의 법회 아니면 응하지 않을듯 감경자세인 것으로 보였는데요.

▲ 사실 23일엔 북측에서 8·15관문점 법회를 강력히 주장했고 24일 월주스님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화기에

서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했어요. 그러자 박태호 위원장이 ‘결론을 내지’며 제안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논의를 해 7월말~8월초 원장스님 방북이라는 최종 합의를 보았지요.

— 그럼 관문점에서의 법회는 북측에서도 포기한 겁니까.

▲ 아니지요. 8·15관문점법회는 시간이 아직 있으니 연구과제로 남긴 것이지요. 이번에 또 합의한 것이 매년 양력 4월 8일 서울과 평양을 왕복 방문 공동법회를 열자는 것입니다.

— 스님께서는 언제부터 민족의 아픈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요.

▲ 지난 1986년 미국에 유학가서 부터입니다. 북한 서적도 읽고 하면서 민족의 아픈 분단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을 ‘적’으로 대해 왔는데 미국사람들에게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코리아’ 이더군요. 또 88년 한국승려론 최초로 백두산 천지에 올랐습니다. 천지물에 몸을 담고 통일을 위해 몸 바치기로 원력을 더욱 다졌지요.

— 광복협(조국평화통일 불교인협의회)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 91년 10월23일부터 LA에서 남북 해외불교지도자가 참석한 ‘조국평화통일기원대법회’에 참석하고 오는 차속에서 월주스님에게 통일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 이듬해 2월 창립했습니다. 북한불교에 대해 무지상태인 불자들에게 북한불교에 대해 알려주고자 전문적 연구기관인 ‘북한불교연구소’도 평북협내에 개설했습니다. 이번에 남북 불교교류의 가교역할을 한 정산스님과 지현정사도 평북협 미주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매년 공동법회 합의

— 북한불교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 북측에는 현재 60여개 사찰에 3백여 명의 승려가 있고, 조선불교도연맹에 가입된 신도수가 1만명인데 초파일 때 등켜는 것을 보면 1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도 초파일을 ‘불탄질’이라 했는데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승려양성을 위한 불학원이 설립돼 있고,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 성도절과 열반절에

각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 23일 실무대표회의에서 박태호 조불련위원장의 ‘붉은 물을 들이려는데 잘 안된다’는 말에 ‘드는 것은 빠지는 것이고 빠지는 것은 드는 것, 들지도 빠지도 않는 것이 민족이고, 통일이다’고 여유있게 답변하신 것이 기자들 사이에서 인상깊게 회자되었는데요. 북한불교계에 신임이 쏠 두터우신 듯 싶습니다.

▲ 박태호 위원장과는 10번쯤 만났지요. 내가 보안법으로 옥살이를 해서인지 껍질 신뢰감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로 상대가 우리 처지보다 못하다고 해서 은연중 무시한다거나 흑백논리로만 보면 불신만 쌓게 됩니다. 다 같은 일불제자로서 포용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정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순은 얘기 하나 할까요. 박태호 위원장이 월주스님과 합석한 자리에서 ‘법타를 붉은 물 들이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는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30년 넘게 회색물 들었으면 뽕지 알뜰달록 색깔 들어서 뽕 하느냐고...

이경숙 기자

나의 수행일기

학교 뒷산에는 오월이 되어 연초록의 나뭇잎들이 생명감을 자랑하고 악수터 가는 길목에는 영산홍이 붉게 피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대학이 산속에 지리잡고 있어 사시사철 자연의 변화를 느끼면서 지낼 수 있다.

불교와의 인연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절에 가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법문을 듣게 된 것은 대학 3학년 때이다. 개인 반대를 외치는 학생들에 대하여 정부가 위수령을 내려 군인들이 장갑차를 동원하여 학교에 들어왔고 대학은 문을 닫았다. 대학 문은 늦가을이 되어서야 다시 열리고, 며칠 뒤 청담스님이 대강당에 오셔서 법문을 하셨다. 스님께서는 맑고 밝은 모습으로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였고, 듣는 중에 나는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갖고 있던 ‘개인이 사회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그 뒤부터 청담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조계사에 토요일마다 나왔다. 당시 조계사에는 원

정기웅 > 성철대법학과 교수



막사를 개조하여 법당을 만들기로 하여 부대장님의 승락을 얻고, 군수과의 사병은 목재를 제공하고, 목공일은 경험있는 사병이 하였다. 부대장 마을의 한의사가 불상이 갖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부족한 목재와 돈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이야기하니 아무 말 없이 내어 주었다. 정말 고마운 분이였다. 부처님은 원각회 신도님들이 모셔주시고, 절이름은 석주스님께서 충효사(忠孝寺)로 지어주시면서 현관도 순수 씨 주셨다. 불발식 때는 석주스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병들에게 수계를 주시고 법문도 하셨다. 그뒤부터 나는 불사에는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며, 불사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바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성철스님 가르침 삶의 지침...군법당 만들기

각회에서 청담스님을 모시고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고 법문을 매주 들으니 여러가지 의문이 생겨서 도선사로 큰 스님을 찾아 보고 싶었으나 조보자라 미루고 있던 중에 청담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딱이 높은 스님이 계신다면 아무리 멀리 가서도 찾아가 법을 물어야 한다



제대후 광덕스님께서 법문하시는 불공회에 나갔다. 스님께서는 원래 밝고 환한 마음을 그 자체를 그대로 내어 쓰라고 가르쳐 주셔서 생활속에서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길에서나 전철에서나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였다.

1973년 대학원에 들어가 원각회의 회원들이 자주 가는 해인사 백련암을 찾았다. 성철스님께 인사드리고 칠일기도에 들어가 매일 삼배를 하였다. 어느날 스님께서 ‘바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고 물으셨다. ‘죽어 있는 것’이라 하자 원지와 증성자 이론을 말씀하시면서 살아 있는 것이라 하셨다. 전생에 관한 것도 최면술을 이용한 외국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이용해 설명해 주셨다. 기도를 마칠 때는 윤회에 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후부터 스님의 가르침은 나의 수행의 지침이며 일상생활의 과제가 되었다.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하여 탱크포를 백발백중으로 명중시키는 전방의 기갑부대에 근무하게 되었다. 부대에서 몇사람의 사병이 모여 군법당을 만들기로 했다.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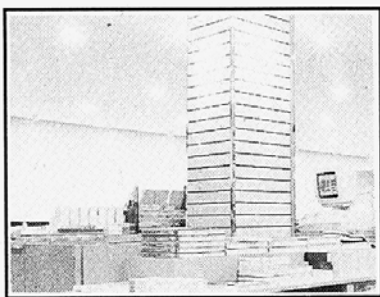
사를 하였다. 대학교수가 될 때는 지금부터 정말 수행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점차 법회에 나가지 않게 되고 스님들께도 좀더 알면 물으러 간다는 핑계로 잘 가지 않았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끝나고 서울로 이사를 와서 한달에 한번 불공사의 철야정진 법회에 나가 좌선을 하며 일상생활 중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가정과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값진 일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려고 한다.

교수로서 좋은 논문 많이 쓰며 학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스승이 되고, 가정에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 항상 밝고 환한 웃음을 짓는 자신되기를 부처님전에 기원드리며 이 글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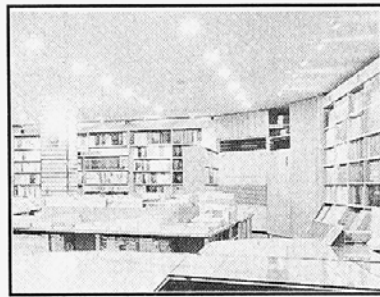
불교, 법학, 문학

책방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오시는 길



- 저자와의 만남 (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 - 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회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